

뮌헨공대(TUM,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교환학생 수기

화학생물공학부

김지원

1. 동기

대학교 입학 전부터 교환학생은 꼭 가봐야지 하는 막연한 목표가 있었는데, 원래 가려던 해에 COVID19가 퍼지면서 조금은 늦은 시기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왔습니다. 독일을 선택한 것은 저에게는 꽤 자연스러운 결과였는데, 자연 풍경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유럽 여행을 길게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 좀 다녀보자 했던 게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헤르만 헤세 작품을 즐겨 읽고 니체 철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본고장에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두 번째, 에너지 공학에 관심이 있는데 독일은 전세계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기에 관련 연구도 많이 활발하지 않을까, 직접 보고 들으면 더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가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을 선택한 것은 꽤나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과정

1) 지원부터 개강 전까지

처음 지원 과정은 서울대에서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다 안내해주기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어느 순간 부터는 서울대가 아닌 뮌헨 공대에서 각종 공지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학 담당자들은 매우 친절하시지만 언어만 달라졌을 뿐인데도 '이제 스스로 다 준비해야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팁 아닌 팁이라면, 뮌헨은 대학 자체에 기숙사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뮌헨 자체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단지를 곳곳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기숙사의 경우 거의 일괄적으로 매달 350유로,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학기동안 2200유로가 좀 넘는 금액을 예치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아시아처럼 멀리서 오는 학생들은 인기가 많은 기숙사에 배정을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Olydorf(olympiapark)에 배정받았는데, olydorf는 작은 복층집이 주르륵 붙어있는 bungalow와 그냥 아파트 같은 tower(hochhaus)가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 신청을 할 때 '높은 층, 좋은 전망, 큰 창문, 개인 욕실, 개인 주방'을 요청 사항에 썼는데 정말 좋은 전망에 적당히 높은 층을 가진 hochhaus에 배정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가끔 정전 나서 동 엘리베이터가 먹통이 되는 것 빼고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bungalow가 대체적으로 인기도 많고 좀 상징적인 동네라서, 거길 가고 싶으시면 그것에 맞게 요청사항을 적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숙사 배정 받았다는 메일 나왔을 때부터 제가 어디 살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구글링 엄청 해보고 사진에 자료에 다 찾았었는데 거의 독일어로만 나와있고 네이버에도 별로 유용한 기숙사 정보는 안 나와서 아쉬웠는데, 뮌헨 오시면 꼭 여기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꽤나 맥시멀리스트라 가서 없으면 조금이라고 후회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거의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가도 어차피 새로 정착하려면 살림살이를 다 새로 갖춰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 위주로 식기나 주방 도구들을 새로 샀는데, 기숙사 방이 1인 1실인데다 개인 주방, 개인 욕실이 구비되어 있어 평소에 요리를 엄청 직접 해서 먹어서 매우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뮌헨공대는 개강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에 속하는데, (22년도 여름학기 기준으로는 4월 25일에 여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개강 전에도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TUMi에도 엄청 올라오고 뮌헨 기숙사 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주 메일로 전달해줘서 교환학생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party animals라고 해서 동물 이름 팀으로 열댓명이 한 팀이 되어 며칠간 여러 활동들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거기서 친해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학생들은 얼마든지 많이 만나려면 수 있으니,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 수강 신청

수강신청은 교환교 과사와 교환학생 담당자분께서 잘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자면 1) 수강 신청이 매우 늦은 편이고, 2) 시험은 따로 학기 중간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수강 신청의 경우, 저는 4월 말 개강이라 2~3월에는 수강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미리 메일을 드려 신청해야하는 세미나를 제외하고는 4월 중에 수강신청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2월 달 즈음 과에서 공지한 1000페이지에 달하는 강의 매뉴얼들을 모두 보고 여름학기에 열리는 영어 강좌들을 모두 정리해놨었는데, 수강신청에 관한 공지가 3월 말까지도 나오지 않아 문의를 해보니 4월초부터나 시작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마저도 실제로 이번 학기에 열리는 강좌들은 제가 알아둔 강좌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굳이 헛걸음하지 마시고 강의가 열릴 때 즈음 열리는 강의를 찾아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강 신청을 할 때, course와 module이 다릅니다. module이 하나의 세트이고, 이 세트는 강의 n개+시험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강의는 하나만 모듈에 있을 수도 있지만 6ECTS 이상의 수업의 경우 실습 course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 모듈 안에 여러개의 강의 course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TUM 홈페이지에서는 course로만 검색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모듈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추천하지 않고, 마이스누에 해당하는 'campus.tum.de' TUM 사이트에서 'TUM degree programs'에 들어가서, 98 Exchange program에 들어간 뒤 본인이 신청한 과를 골라 거기서 module들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study status/curriculum'에 들어가서 본인의 프로그램을 선택한 뒤 모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방법이 course와 module를 헷갈리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우리 학교와 너무 달라서 애를 조금 먹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취소는 거의 학기말까지도 가능할만큼 자유롭고, 학점 역시 시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학기 기준 6월 말, 거의 학기 중간 즈음에 시험 신청이 따로 있는데, 시험 신청을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과 성적이 부여되기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3) 행정 처리

행정처리 할 것들은 대부분 이 TUM이 자체적으로 만든 교환학생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애먹는 거주등록, 거주허가 방법도 여기 사이트까지 포함해서 잘 나와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거주 허가 온라인 신청도 pdf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된 파일도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파일들을 위치가 기억나지 않지만 일단 체크리스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https://www.international.tum.de/en/global/campuslife/#c9209>

은행 계좌는 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N26, Vivid를 사용합니다. 저는 Vivid를 사용했는데, 인증 절차도 간편하고 prime 회원을 가입하면 캐시백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잘 썼습니다. N26을 맨 처음으로 가입 시도를 했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생겨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메일과 고객센터 채팅을 네다섯번 이상 시도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재빨리 Vivid를 가입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행정처리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워낙에 유명하니 더 첨언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느린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속도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공무원분들은 정말 케바케이지만 잘해주는 분들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좋은분들이시긴했는데, 독일어로 된 서류들도 항목 별로 짝다 영어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독일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대개 굉장히 친절하고 friendly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을 새삼 실감하기도 했구요.

4) 개강&학기 중

저는 독일어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 듣고 싶었던 재생에너지 관련 수업을 수강하며 독일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다루는지 배워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우선 독일어 수업에 관해서는, 저는 독일 입국 전 우리 대학교에서 초급독일어 1, 2를 수강했고, 독일 학교에서는 A2.2를 수강하였습니다. 원래는 B1 과정을 수강하려했으나 독일어를 배운지 조금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회화 중심이라고 들어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우는 내용이나 문법 자체는 우리 학교의 초급독일어2로도 커버하고도 남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듣기와 말하기가 위주가 되고, A1수업이나 우리학교에서의 독일어 수업과는 다르게(A1.2는 잘 모르겠지만 A1.1은 완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보니 당연하겠지만 영어로 대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독일어로 진행되는 독일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듣기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문법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어느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첫 일주일 간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거의 들을 수가 없어서 패닉이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이나 학생들의 대화는 차라리 그나마 이해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읽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학기 중간까지 월반을 고민하다가 도전해보자는 마음에 끝까지 이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반에 남은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수월한 수업을 원하고,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수업을 원한다면 회화 중심으로 더 공부를 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전공 수업은 저희 학교의 공부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 핀트가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출석 점수가 따로 없이, 수업 참여는 거의 개인 자유에 맡겨집니다.(물론 당연히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중간고사가 대개 따로 없고, 기말 100%이거나, 기말 100%와 학기 중간에 보너스점수를 주는 과제 세트들이 있는 수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방식은 구두 시험 혹은 필기 시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수업 정보/모듈 정보에 모두 나와있을 것이니 잘 참고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내용은, 저는 독일어 제외 모두 석사수업들을 들었는데 내용은 저희 학부과정만큼, 혹은 그 이하로 쉽다고 느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로 엄청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스타일은 엄청난 계산이나 복잡한 것들 보다는 좀더 원리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타임어택 시험들은 빠졌습니다. 성적은 아

직 나온 바가 없어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생각만큼 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적 분포는 수업마다도 과마다도 다를 것같긴 하지만, 어떤 수업들의 성적 분포를 보았을 때에는 시험을 신청한 사람만 성적을 매기는 것인데도 절반이 F를 받고, ABC비율이 전체의 30%정도 였던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말 100%다 보니 편차가 조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3. 후기

이전부터 꿈꿔왔던 교환학생을 드디어 경험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상과 달랐던 것들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참 많았고,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지만(그래도 당연히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몇 년 간 지치고 지쳐 조금 여유를 갖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다녀온 것도 있었는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 또 때로는 혼자서 여행을 다니며 사색에 잠겼던 그 시간들이 모두 저에게는 값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보고서에 최대한 정보를 모두 적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거의 책 한 권을 쓸 것 같아서 일단 줄이려고 합니다. 아직 학기 중이라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더 보충하게 된다면 되는 대로 수정본을 올릴까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뮌헨공대 교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sopy0708@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보는 대로 성의껏 아는 만큼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